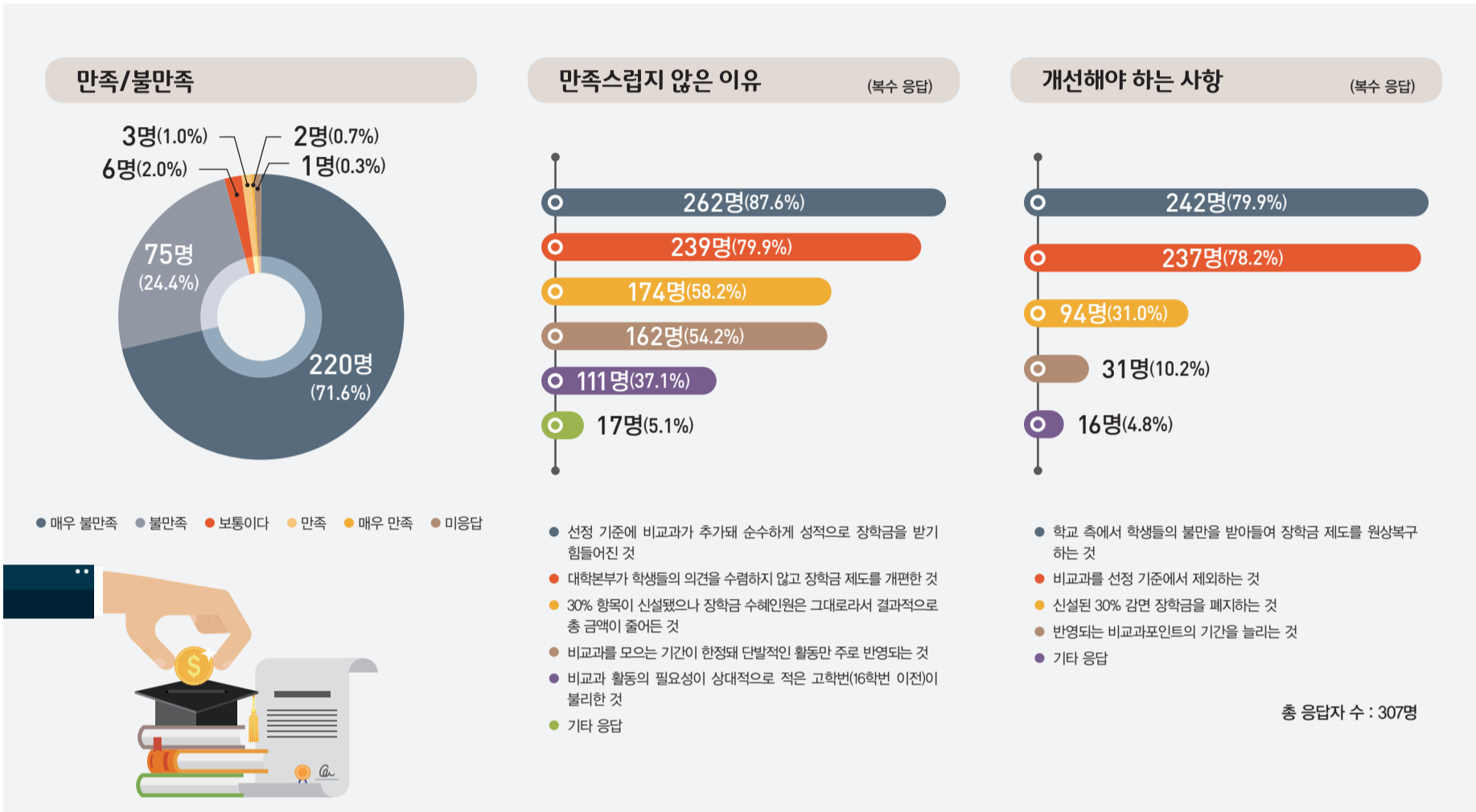


성적장학금, '한성인재장학금'으로 개편돼



지난 3월 6일, 성적장학금 제도를 개편한다는 내용의 '한성인재상 연계 장학제도' 공지가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학생장학팀은 공지를 통해 "성적만 고려하던 최우수·우수 장학생 선발 방식을 변경했다. 선발 기준에 비교과포인트를 추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공지를 본 학생들은 이번 장학제도 개편에 마뜩잖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3월 13일부터 3월 19일까지 한성대신문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개편된 방식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96.1%로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만족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응답자들은

'선정 기준에 비교과포인트가 추가돼 순수하게 성적으로 장학금 받기가 힘들어져서(87.6%)', '대학본부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장학금 제도를 개편해서(79.9%)' 등을 꼽았다(복수 응답). 한편, 대학본부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상욱(학생

장학팀) 팀장은 비교과포인트를 장학 기준에 포함한 것에 대해 "비교과포인트를 장학금 선정 기준에 반영한 것은 우리학교 인재상에 맞는 학생을 양성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3월 16일 정기간담회에서 송진기(기계 4) 총학생회장은 "대학 구조개혁평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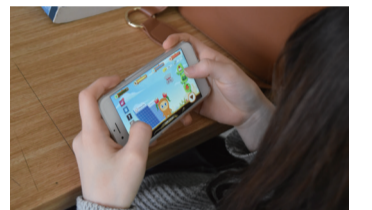
앞서 우리학교가 인재상에 맞게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지 교육부가 살펴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학본부가 장학금 제도에 이를 반영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 2면에 계속
윤희승 기자 yoonhng@gmail.com

지면안내

보도
"2주기 평가를 위한 결정" vs "성적장학금에 비교과라니!" 02

사회
진화하고 있는 불법 웹툰 사이트, 대책은 오리무중 03

문화
앗! 당신의 주변에 숨어있던 기부가 나타났나! 04



사람
책 떠먹여 주는 여자, 북 크리에이터 책임짜리 '이가희' 05



학술
시작하는 밤, 조금 특별해지는 시간 06

오피니언
의화정, 삼학송 등 07

광고
제12회 사진공모전 08

기자사령

임
수습기자 이가연(인문 1)
장수진(인문 1)
정영아(인문 2)
정수민(인문 1)
김기범(사회과학 1)
장선아(사회과학 2)
조솔기(패션 1)
심상우(IT 1)

대학생활 길라잡이 外... '집중이수제' 첫 시행

이번 학기에 처음으로 '집중이수제'가 도입됐다. 집중이수제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점당 15시간 이상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교과별 학기당 수업일수를 단축하는 강의 형태다. 즉, 1학점 당 15시간을 기준으로 한 학기 분량의 강의를 단기간에 이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지난 16년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 중 일부에 해당한다. 우리대학 이외에도 상명대학교(이하 상명대)·금오공과대학교(이하 금오공대) 등이 각각 2017학년도 2학기과 2018학년도 1학기에 집중이수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상명대의 경우, 총 8주 과정으로, 이 역시 특성화고졸 재직자 반에만 시범 적용해 운영하고 있다. 금오공대는 우리학교와 마찬가지로 이번 학기에 처음 시행했지만, 8·9·10주 과정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학교는 앞선 두 대학과는 달리 1주 과정만을 실시했다. 집중이수제 강의는 지난 3월 5일

학사 운영기준 명료화 및 집중이수제		
· 학기당 15주 규정을 완화하여 4~8주 집중이수 가능	* 불려수업, 집중수업 등 수업 형태의 다양화	
· 학점당 15시간 기준은 엄격히 적용하되 운영방식은 자율화		
〈학사운영 주요개념의 이행주체 및 의무〉		
대학	수업일수	30주 이상 개강, 일반·계절·실습학기 등 포함
교수	교수시간	학기당 15시간 이상 기준, 집중수업 허용
학생	출석시간	학기 이수를 인정하는 출석시간 기준을 학적으로 근거 마련

▲ 지난 2016년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 중 집중이수제 관련 내용

부터 9월까지 개강 첫 주에만 진행됐다. 매일 3시간씩 5일간 강의를 들으면 총 15시간을 이수하게 되므로 1학점이 인정되는 것이다. 개설된 교과목으로는 ▲대학생활 길라잡이 ▲수학기초 실력 다지기 ▲대학생활과 진로 등 단기간 집중 이수를 했을 때 효과적인 교과로 구성됐다. 특히, '대학생활과 길라잡이'는 1학년

대상으로 개설됐다.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생들이 하루 빨리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었다. '수학기초 실력 다지기'는 2개 반으로 나눠 진행했다. IT공과대학 내 트랙을 선택한 2학년을 대상으로 한 분반과 이들을 제외한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분반이었다. 이 과목은 학생들이 수학기초를 익혀 왔으

로 배우게 될 전공 강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대학생활과 진로'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진로 및 취업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개설됐다. 실제로 '대학생활과 진로'를 수강한 김연지(IT 1) 학생은 "리더십이 무엇인지, 기업이 어떤 정신을 갖춰야 하는지 알게 됐다. 특히, 내 성향을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기업을 찾아본 활동이 흥미로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아직 1학년이라 직장 창업에 대한 정보가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타인을 설득하는 방법과 올바른 리더의 자세 등 강의에서 배운 내용은 앞으로 조별 과제할 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에 '수학기초 실력 다지기'를 수강한 손창우(정보통신 3) 학생도 "저학년 때 '대학수학' 강의를 수강했다. 오래 전에 배운 내용이라 많이 잊어버렸는데, 이번 수업을 들으며 기초적인 부분을 다시 상기할 수 있었다. 전공 강의를 듣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수강 소감을 전했다.

집중이수제는 교육부가 '창의·혁신 인재 양성'이라는 명목 하에 내놓은 정책 중 하나다. 이번 학기에 그치지 않고 이 제도를 계속해서 운영해 나갈 것인지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 강예림 기자 kyr_0728@hansung.ac.kr



hansungnews

한성대신문
이제는 카카오톡으로 만나보세요

“2주기 평가를 위한 결정” VS “성적장학금에 비교과라니!”

한성인재상지수

환산포인트 = 교과환산포인트 + 비교과환산포인트



장학금 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성적장학금을 받으려면 비교과포인트까지 갖춰야 할 전망이다. 지난 3월 6일 학생장학팀은 ‘한성인재상 연계 장학제도’에 관한 공지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과거에는 최우수·우수장학생을 교과성적으로 선발했지만, 앞으로는 교과성적과 비교과포인트를 모두 고려해 선발하겠다는 것이다. 최우수장학생·우수장학생이었던 명칭도 최우수한성인재장학금(이하 최우수한성장학금)·우수한성인재역량장학금(이하 우수한성장학금)으로 변경했다.

성적장학생, 인재상 기준으로 선발

개편된 제도에 따르면 ‘최우수한성장학금’과 ‘우수한성장학금’은 지난 3월 새로 도입된 ‘한성인재포인트(이하 인재포인트)’와 ‘한성인재상지수(이하 인재상지수)’를 통해 선발한다. 최우수한성장학금은 각 트랙에서 인재포인트가 가장 높은 학생에게 수여하고, 우수한성장학금은 각 트랙에서 항목별 인재상지수가 가장 높은 학생에게 수여한다. 인재포인트는 인재상지수를 종합한 값인데, 교과성적으로 산출하는 ‘교과환산포인트’와 비교과포인트로 산출하는 ‘비교과환산포인트’를 이용해 계산한다. 교과환산포인트는 학기 말 성적이 확정되면 자동적으로 부여된다.

계산 방식은 A+를 9점으로 하고, 성적이 한 등급 내려갈수록 1점씩 깎아 D0에는 2점을 부과하도록 구성했다. 예를 들어 이번 학기에 18학점을 들은 학생이 모두 A0를 받았으면, 교과환산포인트는 8점에 이르는 학점 18을 곱한 144점이 된다. 단, F를 맞은 과목이나 계절학기에 이수한 강의는 계산되지 않고, Pass/Fail(P/F)로 성적을 매기는 과목은 B+와 같은 값으로 처리한다.

비교과환산포인트는 한 학기 동안 학생이 취득한 비교과포인트를 10으로 나눈 값이다. 만약 이번 학기에 비교과포인트를 120점 받았다면, 비교과환산포인트는 120점을 10으로 나눈 12점이 된다. 단, 비교과포인트는 최대 200점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비교과환산포인트는 최대 20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인재상지수는 창의적전문지수, 포용적사회지수, 열린세계지수 세 항목으로 나뉘는데, 교과환산포인트와 비교과환산포인트에 인재상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인재상비율은 다시 전문비율, 사회비율, 세계비율로 나뉘는데, 강의계획서와 학생이력시스템에서 각 교과목과 비교과 활동의 인재상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학생장학팀은 학생들이 자신의 인재상지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생역량개발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등록금 감면 비율도 다양화할 예정이다. 과거에는 성적장학생으로 선발되면 등록금의 70%, 50%를 감면받았지만, 이번에 개편하면서 30% 감면장학금이 신설됐다.

하지만 장학금 수혜비율은 기존과 같은 상위 10% 수준이어서, 기존 방식을 유지할 때보다 총 장학금 지급액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에 안상욱(학생장학팀) 팀장은 “기존에는 학과별로 장학금을 받았지만, 현재는 학과가 트랙으로 세분화돼 실제 수혜 인원은 늘어날 것”이라고 답변했다.

교육부와 학생에 끼인 대학본부

이번 개편에 대한 학생들의 여론은 좋지 않은 상황이다. 한성대신문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6.1%가 ‘이번 성적장학금 제도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만족하지 않는 이유에는 ‘선정 기준에 비교과가 추가되어 순수하게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기 힘들어진 것(87.6%)’, ‘대학본부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장학금 제도 개편을 진행한 것(79.9%)’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설문조사에 응한 학생 A씨는 “비교과포인트 때문에 성적장학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은 성적

장학금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학생들의 불만에 대학본부의 안 팀장은 “비교과포인트를 장학금 선정 기준에 반영한 것은 우리학교 인재상에 맞는 학생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도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대학본부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교내 장학금 문제를 다루는 장학위원회에는 각 학과 주요교수들이 속해 있다. 이들은 수업시간이나 면담시간에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므로, 장학제도 개편으로 진행된 4차례의 장학위원회에서 학생들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됐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 3월 16일 탐구관에서 열린 정기간담회에서 송진기(기계4) 총학생회장은 “대학구조개혁평가에 앞서 현재 우리학교가 인재상에 맞게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지 교육부가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대학본부가 장학금 제도를 개편해 해당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장학제도 개편 건에 대해 언급했다. 이렇듯 학생과 대학본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지금, 대학본부가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희승 기자 yoonihg@gmail.com

#한성 #타임라인

동행한성 자원봉사자 모집

지난 2월 19일부터 4월 6일까지 동행한성(이하 동행)에 참여할 자원봉사자를 집중 모집한다. 동행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시 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하는 대학생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다. 봉사 대상 기관은 서울시 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등의 교육 현장이며, 재·휴학생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 인원에 따라 선발 인원에 변동이 있을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단기, 장기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해 활동하게 된다. 단기 봉사자는 체험활동 보조교사가 필요한 곳에서 비주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장기 봉사자는 매주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방과 후 교실에서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한다. 모든 참가자는 활동 중에도 언제든지 봉사활동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활동 혜택도 많다.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학기 당 비교과 포인트 50pt다. 동행에 참여한 인력이 있으면 교내 사회봉사장학금을 받기도 유리하다. 한편, 동행은 한 학기 30시간 이상씩 2학기 동안 활동한 사람을 우수 봉사자로 선정해 해외 연수, 해외 봉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근영(IT 2) 단장은 “올해 뜻 깊은 활동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며 참여를 독려했다.

김기범 기자 boris980930@gmail.com

1학기 상시진로지도시스템 개시

지난 3월 19일부터 2018학년도 1학기 상시진로지도시스템이 개시됐다. 이 시스템은 학생들의 진로 선택과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해 취업지원팀이 실시하는 학년별 진로교육 프로그램이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재학 중인 모든 학생들에게 취업지원팀이 주당 1회씩, 학기당 총 14회에 걸쳐 학습 자료를 보내준다. 자료는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인 이메일로 발송되며, 12회 이상 참여한 학생은 총 35pt의 비교과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 내용은 학년별로 상이하다. 1학년에게는 월요일마다 ‘자기분석’ 콘텐츠가 제공된다. 환경·성격·적성·가치관 등 자신을 탐색하는 프로그램이다. 2학년에게는 화요일마다 ‘목표수립’ 콘텐츠가 발송된다. 직업적 목표를 수립하는 프로그램이다. 3학년에게는 수요일마다 ‘직업선택’ 콘텐츠가 전달된다. 업종·직종·직장 등 구체적인 직업결정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4학년에게는 목요일마다 ‘진입준비’ 콘텐츠가 주어진다. 선택한 업종·직종·직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취업준비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이메일 외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PLAY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LCP상시진로지도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아 로그인 후 이용하면 된다.

김양진(취업지원팀) 팀원은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 매주 참여하는 것이 학습에 더 효과적이다. 소급 학습을 가능하게 설계한 것은 시험기간이나 MT 등의 일정을 고려한 것”이라며 꾸준히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강예림 기자 kyr_0728@hansung.ac.kr

‘2018학년도 동아리 박람회’ 개최

동아리 연합회는 지난 3월 8일부터 약 일주일여 걸쳐 ‘동아리 투어’와 ‘동아리 엑스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신입생과 재학생이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었으며, 각 동아리는 열띤 분위기에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행사를 총괄한 고요찬(역사 4) 동아리연합회장은 “트랙제가 운영되면서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신입생이 많아졌다. 그래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이번 박람회는 신입생은 물론, 홍보에 나선 동아리에게도 큰 이익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행사였다”고 밝혔다.

동아리 투어는 지난 8일과 9일, 12일과 13일에 걸쳐 총 4차례 운영됐다. 동아리 활동에 관심있는 신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했으며, 오후 12시부터 5시 3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진행됐다. 투어에 참여한 학생들은 동아리연합회 소속 진행원과 함께 인성관을 탐방했다.

동아리 엑스포는 14일과 15일에

상상마당에서 열렸다. 고 회장은 “학기 초에 박람회를 진행해야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서 3월 중순에 개최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동아리 엑스포에는 총 42개 동아리가 참가했다. 상상마당에는 동아리 홍보 부스도 들어섰다. 부스는 ▲공연·예술분과 ▲체육분과 ▲평면예술분과 ▲취미봉사분과 ▲학술분과 ▲종교분과 ▲준동아리로 나뉘어 마련됐으며, 동아리들은 각종 이벤트를 진행하며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같은 날 상상관 1층 로비에는 학내 프로그램 소개 부스도 세워졌다. 이 자리에서는 ▲한성인재상 장학제도 ▲창업 프로그램 ▲국제교류 프로그램 ▲IPP사업단 등 행정 부서별 프로그램 홍보 활동이 진행됐다.

동아리 엑스포에 참여한 IVT의 최혜원(패션 4) 학생은 “그동안 학생들이 동아리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예전보다 많은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



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동아리별 행사 외에도 버스킹, 거리 노래방, 체육분과 이벤트, 전시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준비됐다. 동아리 엑스포 이벤트 중 ‘빨리 먹기’ 행사에 참여한 유지환(IT 1) 학생은 “우리학교에 이렇게 다양한 동아리가 있는 줄 모르고 있었다. 행사장을 돌아보며 여러 동아리에 대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고 회장은 “동아리원들이 함께 노력한 덕분에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학교 관계자들의 도움도 큰 힘이 됐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그는 “학교 축제 전이나, 축제기간에도 동아리연합회 주최로 연합공연 및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향후 행보를 전했다.

김수현 기자 kshkajasa@naver.com

교육혁신원, 핵심역량 진단검사 실시

교육혁신원은 3월 14일부터 4월 6일까지 ‘한성대 핵심역량 진단검사(이하 HS-CESA)’를 진행한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주도 하에 개발된 진단 도구로, 학부 재학생 누구나 학교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다. 검사는 15분가량 소요되며, 참여한 모든 학생에게는 비교과 포인트 10pt가 지급된다.

HS-CESA는 작년 8월 30일 최종 개정된 우리학교 인재상 및 핵심역량을 반영해 구성됐다. 권유경(교육혁신지원팀) 팀원은 “현재 정부의 교육구조개혁에 따라, 대학이 설정한 인재상에 걸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역량 중심 교육과정으로 대학교육이 변화하고 있다. 우리학교도 이에 맞춰 인재육성 체계를 새로이 구축하고자 한다”며 “이번 검사는 학생들의 핵심역량 성취도를 파악해 핵심역량 지원을 강화하고자 기획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 결과는 핵심역량 향상도와 완성도를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이는 학부 교육과정 개편 등 다양한 의사결정에도 활용될 전망이다. 대학본부에서는 본 검사를 통해 학생들이 본인의 핵심역량 수준을 파악하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 팀원은 “앞으로 학생 개개인의 강점을 강화하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교과·비교과 학습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며 “많은 학생들이 검사에 참여해 자기발전의 기회를 얻기를 희망한다”며 참여를 독려했다.

김수현 기자 kshkajasa@naver.com

진화하고 있는 불법 웹툰 사이트, 대책은 오리무중

우리나라 웹툰 시장은 해마다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KT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2017년 국내 웹툰 시장 규모는 7,240억 원으로, 2014년 2,100억 원에 비해 약 3.5배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웹툰은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웹툰 플랫폼인 네진코믹스는 지난해 상반기 전세계 277개국에 서비스했으며, '네이버웹툰'은 사용자 4,000만 명 중 과반수인 2,200만 명이 해외 사용자다. 하지만 국내 웹툰 시장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도 있다. 유료 웹툰을 불법으로 업로드하는 사이트가 바로 그것이다.

웹툰 불법복제로 멎고 있는 웹툰 시장

김한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2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웹툰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액은 약 1,900~2,400억 원으로, 웹툰 시장 규모의 약 30%에 달한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 유명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크’가 1억 3,709만 페이지뷰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정규 웹툰 업체 ‘네이버웹툰’의 기록인 1억 2,081만 페이지뷰를 앞지르는 수치다. 이에 따른 웹툰 작가들의 피해도 적지 않다. ‘불법도용 웹툰 피해 작가모임’ 대표이자 ‘창작자연대’ 고문인 박성철 작가는 “유료 웹툰 결제율이 떨어져 작가들의 수익이 줄어들고 있다. 이로 인해 작가들은 분노와 허탈감에 빠져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이러한 현상을 유발하는 주체를 살펴



보면, 20대 청년층 비율이 두드러지게 눈에 띈다. 창작자연대가 작년 12월 20일 공개한 설문조사 자료에 의하면, 응답자의 78.8%(전체 응답자 1,680명)가 불법 웹툰 사이트에 접속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 중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62.3%로, 전 세대를 통틀어 가장 많았다.

불법 웹툰 사이트가 정규 웹툰 업체를 점차 잠식하고 있지만, 정부 당국은 이를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사이트가 해외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업체에서 제공하는 IP 주소를 이용해 추적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불법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고

있지만,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중립성을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해당 사이트가 실제 차단되기까지는 대략 2개월이 소요된다. 그동안 불법 사이트 운영자는 사이트 주소를 바꿔 계속 운영하는 식으로 주적을 피하고 있다.

‘불법 웹툰 근절’ 구호 아래 모인 관계자들

정부와 업계는 이들을 단속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부터 불법 웹툰 게시판 단속을, 2017년부터는 불법 웹툰 사이트 단속을 시작했다. 또한 웹툰 업체들은 2017년 저작권해의진흥협회(COA)를 창설해 글로벌 모니터링 대행사와 함께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불법 웹툰 사이트에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작가들도 직접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불법 웹툰 사이트의 피해자들이 모여 ‘창작자연대’, ‘불법도용 웹툰 피해 작가 모임’ 등의 단체를 결성했다. 박 대표는 “저작권 문제는 친고죄(당사자가 직접 고소해야 한다는 원칙)에 해당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작가들이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단체를 만든 취지를 밝혔다.

한편 국회 역시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김정재(자유한국당) 등 의원 10명은 작년 5월 10일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에는 ‘저작권법’에 접속차단의 근거를 두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만으로 접속을 차단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고아라(한국저작권보호원) 선임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심의 기간이 2주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윤희승 기자
yoonihg@gmail.com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재검토

관리대상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 논란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관리대상견의 입마개 착용 의무화 ▲모든 반려견 목줄 최대 2m 제한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상해·사망사고 발생 시 형사 처벌 ▲과태료 상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대책은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반려견 물려사고 등 인명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 및 반려견 소유자들은 이 같은 내용에 반발했다. 이들은 “일부 정책들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전문가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은 규제”라고 주장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는 반려견을 위험도에 따라 일반 반려견에서 맹견만 별도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대책에서는 ‘관리대상견’도 추가로 구분해 안전관리 의무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이력이 있거나, 체고(體高)

40cm 이상인 개를 관리대상견으로 구분했으며, 엘리베이터·복도 등 건물 내 협소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 해당 반려견과 동행하려면, 의무적으로 입마개를 착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런 조치에 견주들은 “이런 기준이 라면 국내 반려견의 절반 이상이 관리대상견에 해당된다. 반려견이 크다는 이유로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면 사람도 키가 크고 덩치가 크면 수갑을 차고 다녀야 하는 것 아니냐”며 비난했다. 해당 규제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의 크기와 공격성은 무관하지만, 중대형견이 공격적인 행동을 한 경우 심각한 상해·사망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소유자가 보다 주의깊게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농식품부는 대책 구체화를 위해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T/F’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체고 40cm 이상 반려견의 입마개 일괄 착용’ 항목은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2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안전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신고상금제’ 역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목줄·입마개 미착용 등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신상과 위반 행위가 담긴 사진, 동영상 등을 사건 발생 일주일 이내에 입증자료로 제출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견주들은 이 제도가 “몰카·스토킹을 합법화하는 법”이라며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신고포상금제는 찬·반 양론으로 인해 세부분영방안에 대해 의견수렴·논의·검토를 지속해왔으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금 더 신중하게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반려인·비(非)반려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와 일부 견주들은 “벌금과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 에티켓 홍보 강화와 반려견 소유자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의견을 내고 있다.

정부는 반려견 소유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 시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논의했으나, 향후 입법과 대책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및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예정대로 22일부터 적용됐다. 농식품부는 “금번 대책이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반려동물 에티켓을 정착시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금정 기자
rma0418@hansung.ac.kr



모르면 당하고 알면 든든한 法

당할 수밖에 없는 부동산 허위매물?

우리학교 17학번 A씨는 인천에서 충분히 통학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A씨는 그 생각을 고칠 수밖에 없었다. 매일 왕복 5시간씩 통학하면서 아침부터 수업을 듣는 것은 상상 이상의 피로를 동반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A씨는 부동산 중개 어플리케이션과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해 자취방을 알아보다가 좋은 조건의 매물을 발견하고 부동산에 방문했다. 그런데 이게 웬걸? A씨가 알아본 매물은 “이미 계약이 끝났다”며 중개인이 다른 매물을 추천하는 것이 아닌가. 심지어 중개업자가 보여준 다른 방들은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조건이 너무 열악했다. 부동산 중개 어플리케이션·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허위매물로 인해 헛걸음한 A씨는 정신적·시간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률상으로 책임을 묻거나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 민태욱(부동산학과) 교수는 “허위매물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실제로는 없는 매물인데 허위로 게시한 경우와 매물이 존재하지만 제시한 조건과 실제 조건이 다른 경우다.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중개사가 제대로 설명을 했다면 두 경우 모두 법적 책임은 묻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그렇다면 A씨는 계속 허위매물 때문에 고생해야 하는 걸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부동산 중개 어플리케이션 ‘직방’과 ‘다방’은 자체적으로 허위매물 대응책을 갖고 있다.

‘직방’은 여러 가지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헛걸음보상제는 이용자가 중개소를 방문했을 때, 해당 매물이 허위매물이면 보상해주는 제도다. 이용자가 어플리케이션 내 해당 매물의 등록번호, 중개사와의 통화목록 사진을 제출하면,



직방이 확인 절차를 거친다. 사실이 확인되면 직방은 이용자에게 소정의 보상을 제공하고, 사업자에게는 제재를 가한다. 또한, 직방은 ‘안심피드백’과 ‘안심중개사’를 통해 이용자에게 더 정확한 매물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안심피드백은 중개자에게 전화를 걸어 매물 상담을 한 이용자가 설문조사를 통해 중개사를 평가하도록 한 뒤,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정책이다. 안심중개사는 안심녹취서비스, 매물광고실명제 등의 조건을 충족한 중개사를 안심중개사로 임명해, 이용자들이 보다 정확한 매물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다방’은 허위매물 신고 횟수에 따라 사업자를 제재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처음에는 해당 매물을 비공개 처리한 후 중개사에게 정보를 수정하도록 요청한다. 2회째에는 매물 정보가 수정될 때까지 사업자가 등록한 매물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며, 3회째에는 3일·4회째에는 7일 동안 중개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제한한다. 마지막으로 5회까지 경고가 누적되면 다방과의 계약이 해지되며, 영구적으로 다방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독자들이 이 같은 허위매물 관련 정책을 숙지해 자취방을 구할 때 헛걸음하지 않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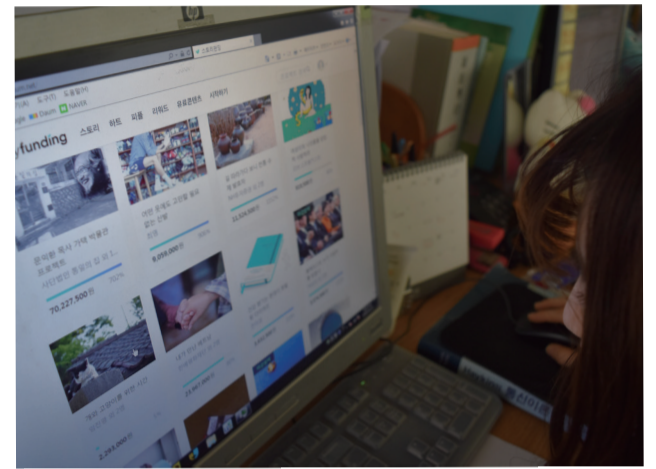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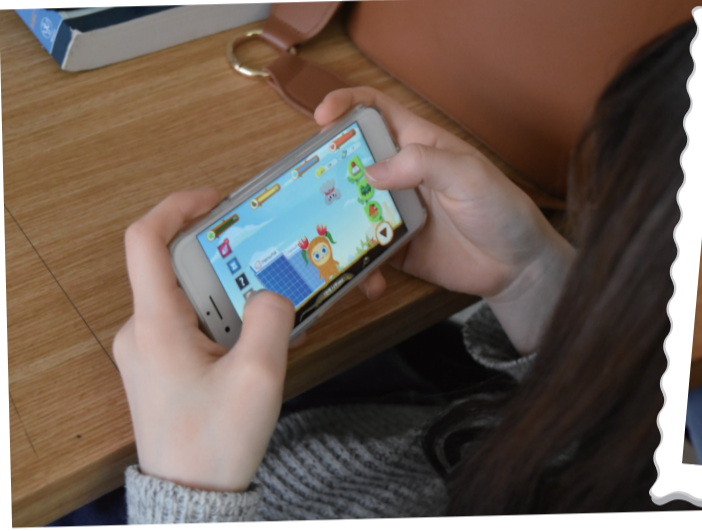
김종민 기자
whdals148@naver.com

앗!? 당신의 주변에 숨어있던 기부가 나타났다!

〈편집자주〉

최근 기부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단순 모금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기부문화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다양한 기부방식 가운데 추천할 만한 것들을 김 기자가 추려봤다.

김수현 기자 kshkajasa@naver.com



누구에게나 기부에 대한 기억이 하나쯤은 있을 것이다. 초등학교 시절 '사랑의 빵'이나, 구세군 냄비에 넣었던 천 원짜리 지폐 한 장의 추억 말이다. 이런 방식의 기부만 하며 살아온 당신에게, 기부는 그저 단순한 모금행위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왕 기부를 한다면 조금 더 재미있는 방법을 통해 의미있는 경험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제부터 소개할 기부방식은 당신의 고정관념을 훨씬 뛰어넘는 것들이다.

여기 있는 '퍼네이션'과 '크라우드펀딩', '포인트 기부' 등은 단순히 '얼마'를 기부하던 틀을 깨고 '어떻게' 기부할 것인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게임중독자에서 기부중독자로

평소 스마트폰 게임을 좋아한다면 '트리 플래닛'이라는 게임을 해보는 건 어떨까. 당신이 이 게임을 플레이하기만 해도 나무 부족 국가에 나무가 기부된다.

게임 속에 펼쳐진 세계지도에서 중국, 네팔 등 나무가 부족한 지역을 선택한 후, 미션을 해결해 나무를 성장시키면 실제로 그 지역에 나무가 심어진다. 나무에 직접 이름도 붙일 수 있다.

이 게임을 통해 지난해까지 전세계 12개국에 55만 그루 이상의 나무가 심어졌고, 116개의 숲이 조성됐다. 팬들이 스타를 위해 선물한 '스타 숲'부터 위안부 할머니와

세월호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추모 숲'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기업이 게임 내 광고를 게재하는 대가로 나무 심는 자금을 지원하면, 비영리 민간단체가 실제로 나무를 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당신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한편, 가치있는 콘텐츠를 찾아 스스로 금액을 매겨 기부하는 문화도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콘텐츠를 소비한 뒤 자신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지불하거나, 고품질 콘텐츠를 손에 넣기 위해 콘텐츠 생산 비용을 과감하게 지원하기도 한다.

이런 방식의 기부에 참여하고

싶다면, 다음카카오의 콘텐츠 크라우드펀딩 서비스 '스토리펀딩'을 둘러보자. 스토리펀딩은 창작물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펀딩을 받을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춘 오픈 플랫폼이다.

스토리펀딩에는 취재비용이 필요한 언론인이나 출판·제작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창작자들이 주로 참가한다. 이들은 자신의 콘텐츠 생산과정과 결과물을 소개하고, 이용자들은 콘텐츠에 자유롭게 가격을 매겨 후원한다.

스토리펀딩의 경우 2018년 3월 22일 기준 총 787,986건의 펀딩이 이루어졌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후원이 진행 중이다.

포인트 거저되고 마음 부자되는 법

금전적인 부담이 없는 '포인트 기부'도 있다. 각종 멤버십, 카드사 포인트를 기껏 쌓아 두고도 유효기간 내에 미처 다 쓰지 못해 소멸되는 경우가 있다. 어차피 쓰지 못할 포인트라면, 소멸하기 전에 기부하는 편이 어떨까.

SKT 멤버십 포인트는 불우이웃 후원 사이트인 '기브 유'에서 포인트 1점당 1원을 기부할 수 있다. 기브 유 전용앱을 통해서도 포인트 기부가 가능하다.

해피포인트 역시 자체적으로 기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회원들이 적립한 해피포인트의 10%를 기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네이버페이' 포인트도 기부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기부하고 싶다면, 해피빈 사이트에서 원하는 모금함을 선택하고 '기부하기'를 누르면 된다. 복잡한 절차 없이 원하는 만큼 기부할 수 있다.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의 마음도, 지갑도 여는 때 보다 굳게 닫힌 지금, 우리에게도 이처럼 큰 돈을 쓰지 않고도 따뜻한 온정을 베풀 수 있는 다양한 기부 문화가 존재한다. 가끔 기부할 마음이 든다면 한번 주위를 둘러보자. 당신이 모르는 새로운 기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편하고 편하게 즐기는 기부 게임

- 이름** 애프터 데이즈
- 장르** 어드벤처
- 내용** 2015년 4월 25일 발생한 네팔 지진 생존자들의 이야기
- 특징** 네팔 지진 피해 생존자들의 이야기로, 지진 이후 그들이 헤쳐온 달간의 생존기를 그린 2D 어드벤처 게임이다. 게임을 구입하면, 그 돈이 네팔 지진 피해자를 돕는 후원금으로 사용된다.

당시 현장을 생생하게 반영하기 위해 대표는 네팔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답사하고, 피해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이에 대해 그는 "현장을 방문해서 15명과 인터뷰를 했고, 약 10일간 네팔 수도 카트만두와 게임 배경이 되는 시골 마을들을 취재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들은 일화를 게임 내용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겜브릿지는 공정무역비영리단체 '아름다운커피'와 후원 협약을 맺기도 했다. 겜브릿지는 게임 운영 수익의 20%를

아름다운커피에 후원금으로 보내고 있으며, 작년 12월에는 게임 운영 수익 300만 원을 아름다운커피를 통해 네팔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대표는 "그 결과 네팔 커피 농가 약 300가구의 연소득이 10% 상승하는 결과를 얻게 됐다. 앞으로도 이런 모델로 계속해서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겜브릿지는 애프터 데이즈의 IP를 활용한 캐주얼 게임, 글로벌 NGO 해피타트와 함께 기획한 게임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알렸다.



- 이름** 낭덕능력시험 with melions
- 장르** 두뇌게임
- 내용** OX퀴즈를 통해 고양이에 대한 지식을 얻고, 길고양이도 후원할 수 있는 진성낭덕 인증게임!
- 특징** 고양이 관련 퀴즈를 풀어 서바이벌에서 살아남으면, 퀴즈대회에서 만난 고양이들을 모을 수 있다. 게임을 하며 얻을 수 있는 하트 캔디는 길고양이를 돕는 후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생존기를 그린 2D 어드벤처 게임이다.

이 게임을 제작한 '플레이임팩트'는 사회문제를 쉽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설립된 소셜벤처 기업이다. 이들은 2015년부터 유기견 문제 해결을 위한 퍼네이션 게임 '웰피Whelpy'를 개발하는 등 행복한 반려생활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이번에 소개할 낭덕능력시험 게임은 고양이 퀴즈 1,200 문항을

담고 있다. 플레이임팩트의 김경훈 대표는 "유익한 문제를 내기 위해 12권의 고양이 서적을 읽고 정보를 추려내어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문제를 출제했다"고 설명했다.

각 문제는 OX퀴즈 형태로 출제되며, 14마리의 고양이 캐릭터와 함께 문제를 풀게 된다. 끝까지 살아남으면 더 큰 보상을 받는 서바이벌 형식을 적용해 재미를 더했다. 게임에는 '낭덕낭덕'부터 '만렙낭덕'까지 여러 단계의 '낭덕'이 있으며, 각 단계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승급전 개념의 퀴즈를 풀어야 한다.

게임 플레이 도중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 유저가 자발적으로 광고를 시청할 수 있으며, 게임 내 아이템도 판매하고 있다. 게임 내 광고 시청과 인앱 결제를 통해 발생한 매출의 5%는 '하트 캔디'로 유저에게 지급된다. 하트 캔디는 길고양이를 위한 후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김 대표는 "기업 광고 혹은 현물 협찬을 바탕으로, 광고 시청이나 결제 없이 그저 게임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하트캔디를 얻을 수 있게끔 점차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애프터 데이즈는 네팔 지진 생존자들의 생존 과정을 게임을 통해 간접체험하고, 게임 수익을 지진 복구 사업에 후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애프터 데이즈의 제작사 '겜브릿지'의 도민석 대표는 "이번에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밝혀졌고, 대형사건·사고들도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주변의 소외된 사람들과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우리 미래 세대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게임 기획의도를 밝혔다.

책 떠먹여 주는 여자, 북 크리에이터 책임짜리라 '이기희'



Life is too short to drink bad beer

시원하고 환상적인 맥주를 맛보기 위해 당신은 어디로 향하는가. 아직도 흥대, 건대, 이태원에 연연하고 있지는 않은가. 똑같은 풍경과 똑같은 메뉴가 지켜워지기 시작한다면, 발걸음을 돌려 50년 전통의 '독도시장'으로 향해보자. 이곳에 환상적인 수제맥주를 맛볼 수 있는 수제맥주집이 있다.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독도시장에서 '성수제맥주X슈가맨(이하 슈가맨)'의 대표 김성현 씨(37)를 만났다.

수제맥주는 김 대표의 인생에 운명적으로 흘러들어왔다. 미술을 전공하고 인테리어 업계에서 일을 하던 그는 우연히 수제맥주집 인테리어를 맡게 됐다. 그 일을 계기로 김 대표는 해당 점포 사장님과 친분을 쌓게 됐고, 하던 일을 접고 그곳에서 일하게 됐다.

"수제맥주집에서 3년 정도 일하다 보니, 내 가게를 내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웃음)"

그도 처음부터 시장에 점포를 차릴 생각을 한 것은 아니었다. 남들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변화가 좋을거라 생각했던 그가 생각을 바꿔 전통시장에 눈을 돌린 데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 창업을 준비하던 중 알게 된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이 사업은 전통시장에서 창업하는 청년에게 점포 입점과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준다. 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그는 과감하게 도전장을 내밀기로 결심했다.

주변의 우려도 있었다. 전통시장에 수제맥주집을 차린다고 얘기했을 때, 대부분의 지인이 "거기서 되겠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 시장 안에, 누가 온다고 거기서 장사 하려고 하냐"며 만류하는 사람도 많았다.

"그래도 해보고 싶었어요. 내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재미있을 것 같고, 웬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웃음). 어디에 있던 수제맥주라는 콘텐츠를 잘 홍보하고 운영해 나가면 위치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더 좋은 위치에서 했으면 더

자기소개서를 취미란에 '독서'라고 적으면서도 한 달에 책 한 권조차 읽지 않고 있나? 베스트셀러나 SNS에서 인기 있는 책을 구입하고 완독하지 못한 적은 없나? 책을 읽어야 한다는 의무감은 누구나 갖고 있지만, 정작 책을 끝까지 읽어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런 당신을 위해 누군가 대신 책을 읽고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요약해준다면 어떨까. 당신이 가만히 입만 벌리고 있어도 책을 '꼭꼭 씹어 떠먹여 주는 사람'이 바로 여기 있다. 북 콘텐츠 '책임짜리'를 운영하는 북 크리에이터 이기희 씨가 그 주인공이다.

북 크리에이터? 북튜버?

이기희 씨는 우리나라 최초의 '북 크리에이터'다. 북(Book)과 유튜버(Youtuber)를 합쳐 '북튜버'라고 부르기도 한다. 북 크리에이터와 북튜버는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들은 SNS나 동영상 플랫폼을 기반으로, 책을 소재로 한 콘텐츠를 제작해 배포하는 활동을 한다. 그녀는 책 내용을 요약해 전달하고 소개하는 '책임짜리'라는 영상을 제작·게시하고 있다. 현재 그녀는 유튜브·페이스북·카카오채널 등의 다양한 플랫폼에서 영상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페이스북 페이지는 5만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북 콘텐츠 세계에 발을 딛다

이 씨가 처음부터 북 크리에이터였던 것은 아니다.

특별한 메뉴가 있다.

시장 음식을 가져다 파는 '상생 메뉴'다. 순대, 툇탕, 흥어 등 시장 내 이웃가게에서 파는 음식을 안주로 제공하는 것이다. '상생메뉴'가 탄생하게 된 전말은 이렇다.

"메뉴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맥주 정보는 빠삭하지만, 안주에 대한 지식은 거의 없었거든요. 간단한 게 뭐가 있을까 많이 찾아봤지만, 생각해낸 건 겨우 감자 튀김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맥주를 마시다가 우연히 옆 가게에서 파는 순대를 사먹게 됐어요. 맥주와 순대라는 새로운 조합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웃가게에서 음식을 가져다 먹는 게 시장 점포만의 특징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메뉴에 반영하기로 했어요."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그는 근처 음식점을 찾아가 음식을 가져다 팔고 싶다고 제안했고, 그러자 대부분의 상인이 흔쾌히 허락해 주었다. 그는 "저희 점포에서 소주나 일반 맥주를 팔지 않고, 슈가맨만의 술을 팔아서 가능했던 것 같다"며 웃었다.

김 대표는 아직 본인이 전통시장 창업의 성공 모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는 계속 자리 잡아가기 위해서 "전통시장 전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특별한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상인들과 함께 플라마켓 형식의 장터를 자주

그녀는 대학 졸업 후, 모바일 앱서비스를 개발해 운영했다. 책을 읽다가 발견한 좋은 문장을 저장해 공유하는 '원센텐스'가 그것이다. 앱 홍보를 위해 팟캐스트, 카드뉴스 등 콘텐츠를 제작하던 중, 그녀는 페이스북에 라이브 방송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 순간, 그녀는 불현듯 '책 읽어 주는 방송을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떠올렸다. 라이브 방송은 당초 계획에 없었던 일이라, 그녀의 첫 방송은 별다른 준비조차 없이 즉흥적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반응은 예상 외로 뜨거웠고, 이를 계기로 이 씨는 북 크리에이터의 길을 걷게 됐다. 현재, 원센텐스 앱 운영은 다른 회사에 양도한 상태다.

'책임짜리'라고?

방송 제목을 '책임짜리'로 결정한 것은 그녀의 대학시절 별명 때문이다. 이 씨는 대학에서 중국 문화를 전공했다. 그래서 중국어를 접할 기회도 많았다. 그녀의 이름인 '이기희'는 중국어 발음이 '리 짜이시'였고, 대학시절 동기들이 별명 삼아 그녀를 '짜리시'라고 부르던 것이 점차 '짜리'로 고착됐다.

처음 페이스북에서 책 읽어주는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을 때, 그녀는 스스로 '책임녀(책 읽어주는 여자)' 같은 흔한 이름으로 소개하는 것은 진부하다고 생각했다. 결국, 그녀는 고민 끝에 자신의 별명을 직접 사용했다. 당시 "안녕하세요, 짜리입니다"라고 언급했던 멘트에서 '책임짜리'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책 한 권을 읽은 듯한 콘텐츠를 위해

북 크리에이터가 된 이후부터, 이 씨가 영상을 제작할 때마다 되새기는 모토가 있다. '책 한 권을 읽은 듯한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녀가 의도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녀의 영상을 보고 '책을 직접 읽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다. 영상 한 편으로 의미 있는 정보를 전달하고, 좋은 질문이나 생각할 거리를 제공해서, 직장인과 학생들이 퉁퉁·퉁퉁길에 한 가지 좋은 생각을 얻어 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그녀의 목표다.

책을 꼭꼭 씹어준다

'책임짜리'가 많은 구독자를 끌어모을 수 있었던 요인으로, 이 씨는 사람들에게 내재돼 있는 '공부하고 싶은 욕구'를 꼽았다. 졸업 후 취직에 성공하면 인생의 목표를 이룬 것과 같았던 과거와 달리, 요즘 직장인들은 퇴근 후에도 공부

하고, 주말에도 시간을 내어 공부한다. 계속 성장해야 한다는 욕구가 마음 한 켠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퇴근 후에 집에 돌아오면, 애초에 책 읽을 에너지가 바닥나고 만다. 이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은 누군가 대신 책을 읽고 내용을 요약해주길 바란다. 그녀가 매 영상 인트로에서 '책을 꼭꼭 씹어드린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바로 그런 심리를 공략하기 위해서다.

영상이 구독자에게 달기까지

이렇게 '꼭꼭 씹은'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단계는 구독자의 입장에서 책을 고르는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이 책을 직접 돈을 주고 사서 읽었을 때 아깝지 않을까?', '친구에게 추천할 만한 책인가?' 등 구독자 입장에서 질문을 만들고 이를 점검한다. 그 다음에는 대본을 작성한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다. 한 영상에는 반드시 하나의 메시지만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용이 중간중간 끊어져 전달력이 떨어진다. 대본을 작성한 후에는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게시할 발문을 작성한다. 여기까지 하면 반은 끝난 것이다. 이제 도입부에 '훅(Hook)'을 삽입한다. 훅은 페이스북 유저들이 피드를 내리는 단 몇 초 안에 그들이 이 영상을 볼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즉, 시선을 끌고 입맛을 사로잡는 것이다. 이후 그녀는 1시간가량의 영상 촬영과 편집을 거쳐 유튜브·페이스북·카카오채널 등에 영상을 게시한다.

독서에 부담을 느끼는 그대에게

이 씨가 북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보니 그녀에게 독서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대다수가 책을 사놓거나 빌려두고도 다 읽지 못한 채 포기한 경우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책을 다 읽지 않아도 괜찮다'며 뜻밖의 조언을 건넨다. 다만, 이들에게 책이 있는 환경에 익숙해질 것을 권유한다. 예를 들어, 약속 장소를 잡더라도 서점으로 하고, 공부를 하더라도 서가에서 하면서 항상 책과 가까운 곳에 있으라는 것이다.

완독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방법도 있다. 이 씨는 프롤로그와 처음 1장만 읽어도 그 책의 50%를 이해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한다. 그만큼 읽은 후에는 더 읽고 싶으면 마저 읽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만 읽어도 좋다는 게 그녀의 조언이다.

이 씨는 '책을 읽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진 사람들에게 '책에 대한 강박관념을 버리라'고 말한다. 다 읽지 못한 것에 대해 자책감을 갖지 말고 그저 독서를 즐거움의 영역에 두면서 좀 더 편하게 여겼으면 하는 것이 그녀의 바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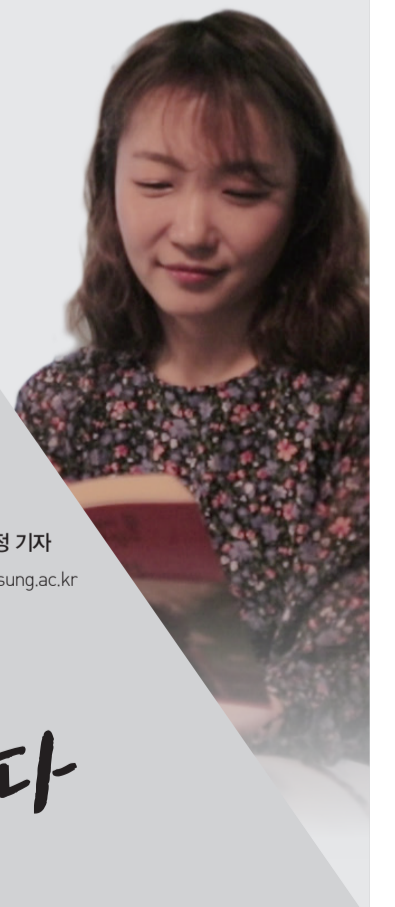
강예림 기자

kyr_0728@hansung.ac.kr

열려고 구상하고 있어요. 시장 도로를 막고, 시장 상인들이 나와 자기 음식을 팔고, 외부 셀러들도 초대해서 서로 교류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말이예요. 시장 전체가 살아야 나도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웃음)"

박금정 기자

rma0418@hansung.ac.kr



맛없는 맥주를 마시고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짧다

시작하는 밤, 조금 특별해지는 시간



혹자는 이렇게 말한다. 시인은 시에 대한 천부적 재능이 있는 존재들이라고, 시는 시인의 전유물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알고 보면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야만 시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강호정(응용인문학부 국어국문전공) 교수에 따르면 “시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노력과 경험의 소산”이기 때문이다.

시를 쓰기에 앞서, 우리가 시에 대해 갖고 있는 오해를 풀 필요가 있다. 첫째는 ‘시는 영감을 통해 창작되는 천재들의 예술’이라는 생각이다. 물론 이러한 생각이 팽배하던 시절은 있었다. 바로 18세기 말에 처음 등장한 낭만주의 시대다. 낭만주의는 세계를 관념적으로 인식하는 문예사조를 말한다. 이 시기에는 독특한 시각을 통해 이해한 세계를 시로 써냈기 때문에 영감을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강 교수는 이에 대해 “실제로 시를 쓸 때는 어느 날 불현듯, 무엇인가 떠올라서 시를 쓰는 일보다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생각하다가 자신의 경험을 시의 형식으로 옮길 때가 더 많다”며 시인으로서의 경험을 전했다.

또 다른 오해는 ‘시 쓰기는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이 또한 완전히 맞는 말이라고는 볼 수 없다. 소묘를 그릴 때 미술적인 기술이 필요한 것처럼 시를 쓰는 데도 기술적인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강 교수는 “시에는 음악적 요소(리듬)와 회화적 요소(이미지)가 들어 있다. 대상을 세밀하게 관찰한 것을 바탕으로 다양한 비유법을 동원해 대상을 이미지화하는 훈련을 반복하면 시를 쓰는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물론 시를 쓸 때, 앞서 말한 ‘영감’이 아예 배제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기술’이 시의 전부라고 할 수도 없다. 다만, 시를 처음 쓰는 사람에게 있어 ‘기술’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창작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시 창작은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시를 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많은 독서와 경험, 그리고 자주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독서를 많이 하라는 말은 알겠는데, 많은 경험을 하라는 말은 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시를 쓰는데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얘기다. 시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겪은 경험을 압축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시’에는 작가의 경험이 녹아 있다. 정지용의 「유리창」을 떠올려 보자. 이 작품은 시인이 아들을 잃고 겪은 슬픔을 바탕으로 창작한 것이다.

생각하는 훈련도 시 창작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다. 윤동주의 「별 헤는 밤」을 살펴보자. 「별 헤는 밤」의 소재는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이다. 시인은 「별이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그치지 않고, 「어머니, 추억, 슬픔, 동경」 등 다양한 것들을 별과 연관지어 생각하고 시를 써냈다. 시인이 오랜 생각을 거듭한 끝에 누구나 흔히 볼 수 있는 ‘별’을 소재로 한 편의 작품을 완성해낸 것이다.

“많은 독서와 경험, ‘생각하기’까지 숙지했다면 이제 시를 쓸 준비가 됐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시를 쓸 때 유념해야 할 점이 있다. 무작정 짧다고 잘 쓴 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확장시절에는 짧은 시 위주로 배우기 때문에 그 안에 이야기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시의 ‘시’도 알지 못한 생각이다. 시가 짧은 이유는 그 안에 이야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시인이 오랜 고민을 통해 이야기를 짧은 문장으로 압축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를 처음 쓰는 사람은 짧게 쓰기보다는 길게 쓰고, 길게 쓰는 게 익숙해지면 여러 번의 퇴고를 거쳐 시를 짧게 줄이는 것이 좋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써낸 작품이 잘 쓴 시인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강 교수는 “잘 쓴 시, 좋은 시에 대한 기준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라 간단히 대답하기는 어렵다. 다만, ‘못 쓴 시’에 대해 알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우선 시는 구제성이 있어야 하고 매우 논리적이야 한다. 또, 지나치게 화려한 수식어를 사용한 시도 잘 썼다고 보기 어렵다”고 의견을 전했다.

끝으로 강 교수는 “시를 안 읽고 안 쓴다고 사는 데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시는 짧은 글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짧은 글 속에 숨어 있는 보물을 찾아내는 재미도 쏠쏠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더 나아가 학생들이 시를 한번 써 봤으면 좋겠다. 특별한 사람이 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시를 쓰기 때문에 자신이 특별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시 쓰기를 독려했다.

김종민 기자
whdals148@naver.com



찾았다! 황금빛 튀김의 길

어떤 재료로 만들어도 맛있는 신비한 매력을 지닌 튀김 요리. 그런 튀김 요리조차 항상 실패하는 요리 풍손인 당신을 위해 이번 기사를 준비했다.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자태의 황금빛 튀김을 만들 수 있을지 지금부터 과학적으로 파고들어 보자.

튀김에 쓸 기름을 사러 마트에 간 당신. 올리브유, 카놀라유, 옥수수유, 포도씨유 등이 진열대에서 당신을 유혹하고 있다면, 당신은 어떤 기름을 선택할 것인가? 이 중 튀김에 적합한 식용유는 발연점이 높은 것이다. 발연점이란 액체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온도로,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끓는점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발연점은 기름의 종류마다 다른데, 옥수수유가 섭씨 270도로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그 외에 카놀라유는 250도, 포도씨유는 220도, 올리브유는 180도로 알려져 있다.

대개 튀김용으로는 포도씨유, 카놀라유를 많이 사용한다. 튀김 요리를 할 때 기름을 200~25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위험한데, 기름이 가열점에 가까워질수록 튀김 겉면이 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만약 냄비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한다면 가열점에 도달했다는 신호이므로 기름을 추가해 온도를 낮춰야 한다.

튀김옷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대해 최희선(동아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물과 기름의 밀도차가 잘 일어나야 맛있는 튀김을 만들 수 있다. 그러려면 글루텐 양이 적은 밀가루나 옥수수가루를 사용

해야 좋다”고 설명했다. 글루텐(Gluten)이란 밀, 보리 등에 들어 있는 글루테닌(Glutenin)과 글리아딘(Gliadin)이 결합해 만들어진 단백질 성분이다. 이 두 단백질 성분은 물에 잘 풀어지지 않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밀가루에 물을 넣어 반죽하면 글루테닌과 글리아딘이 물에 녹지 않고 서로 결합해 탄력성 있는 얇은 피막을 형성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글루텐이다.

고온의 기름에 튀김옷이 들어가면 글루텐에 포함된 수분이 가장 먼저 열에 의해 증발한다. 글루텐 함량이 높을수록 수분이 쉽게 증발하지 않기 때문에 글루텐이 많이 든 밀가루를 튀김옷으로 사용하게 되면 물과 기름의 밀도차가 적게 일어나 튀김이 눅눅해진다. 튀김옷에 들어 있는 수분을 기름이 내쫓고 그 자리를 채우야 바삭바삭한 튀김이 되는 것이다. 밀가루는 글루텐 함량에 따라 백력분(20%), 중력분(30%), 강력분(40%)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바삭한 식감의 튀김을 만들려면 백력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끝으로 최 교수는 “튀김을 많이 만들고 싶다고 냄비에 재료를 한꺼번에 넣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며 “170도 기름에 차가운 튀김 재료를 한꺼번에 집어 넣으면 온도가 순식간에 150도 이하로 떨어져, 튀김의 바삭한 식감을 살릴 수 없게 된다. 조금씩 튀겨내야 먹음직스러운 튀김을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수현 기자
kshkajasa@naver.com



포다시 유목하는 우리, '노마드'

놀고 먹고 쉬면서만 살 수 있다면 더 없이 행복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수 없다. 어차피 해야 할 일, 최소한 내가 머물고 싶은 곳에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해외여행을 다니며

노트북으로 업무를 본다면, 굳이 여행이 아니더라도 단골 카페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어떨까. 숨 막히는 직장생활에서 벗어나 보다 더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원하는 장소에서 디지털 기기로 일하는 방식을 우리는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라고 부른다. 최근 유행어(YOLO, You Only Live Once) 문화가 급부상하면서 각광받고 있는 새로운 업무형태다. 여기서 '노마드(Nomad)'는 우리말로 유목민(遊牧民)이라는 뜻이다. 노마드에서 파생된 노마디즘(Nomadism)은 유목민적인 삶과 사유를 추구하는 '유목주의'를 의미한다. 특히, 요즘에는 특정한 방식이나 가치관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자아를 찾아간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노마드'는 현대 노마디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익히 알고 있듯 유목민은 '가축을 방목하기 위해 목초지를 찾아 다니며 이동생활을 하는 민족'이다.

정착민의 관점에서 이들은 항상 야만적인 '오랑캐'로 기록돼 왔다. 확장시대 역사책에서 한번쯤 접해본 몽골족·훈족·흉노족·거란족 등이 바로 그들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주목한 일부 철학자와 역사가는 유목주의, 즉 '노마디즘'이아말로 인류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본질적인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유목은 과거의 생활양식으로 치부하는 사람이 많지만, 지금도 실�크로드에서는 적지 않은 유목민을 만날 수 있다. 중앙아시아의 '~스탄(stan)' 국가에는 아직도 유목생활을 하는 주민들이 많다. 또한, 유목의 본토라 할 수 있는 몽골에도 많은 유목민들이 살고 있다. 에스키모로 알려진 시베리아의 '이누이트족' 역시 유목민이다. 이외에도 아프리카 수단, 누에르족, 케냐·

탄자니아의 마사이족 등이 유목생활을 하고 있다.

유목민은 원래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좋아해, 항상 새로운 것을 찾아 이동했다. 이는 그들이 줄곧 위험 부담을 안고 있었으며, 불안정한 여정에 삶을 맡겨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목민은 정착해 농사를 짓고 재산을 소유하며 자연을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자유롭게 이동하고 자연과 공존하며 여행하는 삶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인 것이다.

사실 시간과 장소를 떠나서 우리는 모두 유목민이다. 인류는 약 6백만 년 전부터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수렵과 채집 생활을 해왔다. 인류가 농경생활을 시작하면서 정착한 것은 신석기 혁명이 일어난 1만 년 전에 불과하다. 즉, 유목은 인류가 정착하기 훨씬 전부터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삶, 그 자체다.

이태주(기초교양교육과정) 교수는 “우리 세계는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는, 언제 어디로든 이동할 수 있는 '노마드 세상'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미지의 세계를 찾아 나서는 진정한 노마드들이 곧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노마드 정신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며 노마드와 노마디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여행과 모험이 직업이 되고, 새로운 도전과 상상력이 현실이 되는 세상이다. 우리학교 학생들이 모험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늘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진정한 노마드가 되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강예림 기자
kyr_0728@hansung.ac.kr



의화정 비교과 활동, 그 안에서 사람을 만나다

나의 꿈은 어렸을 때부터 국어 선생님이었다. 대학교 1학년을 마무리 할 때쯤, 우연히 길을 가다 'OO야학 교사 모집'이 눈에 들어왔고, 다음 날로 그 야학을 찾아갔다. "1년은 의무로 해야 하고, 주 3일은 나와서 수업을 해야 합니다." 1년의 기간, 주 3일 저녁 시간 할애라는 말이 한 번 더 심사숙고하게 만들었지만, 내가 꿈꾸던 그 길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길이 될 거라는 생각에 시작하게 되었다.

내가 간 야학에서는 교사, 학생이라는 말 대신에 '강학(講學), 학강(學講)'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교사를 지칭하는 강학은 '가르치면서 배운다'는 의미였고, 학강이라는 말은 '배우면서 가르친다'는 의미였다. 대부분의

학강님(학생)들은 여러 사정으로 배움의 기회를 놓쳤으나 배움의 열정을 놓지 못한 어르신들이었다. 그곳에서 중학교 국어를 가르치면서 학강님들의 겸정고시 준비를 도와드렸고, 각종 행사에도 참여했다. 1년이 넘는 시간을 야학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왜 '강학, 학강'이라는 말을 사용하는지 알게 되었고, 그 기간이 나를 돌아보고, 내 인생의 지양분이 될 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시간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 보니 내 꿈에 조금 더 다가가기 위해 선택한 그 활동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비교과 활동이었다.

얼마 전 한국어과정 엠버서더 모집에 대해 질문하던 학생들과 독서클럽의 지도를

말이달라며 연락을 해 온 학생들이 있었다. 학교 내에 마련된 다양한 비교과 활동들을 탐색하고 그 안에서 전공과 관련된, 또는 자기 계발과 관련된 일을 찾아나가는 그들의 모습에서 아주 오랜 전 그날의 내가 떠올랐다. 아마 이 학생들은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과 독서 토론을 하고, 외국인 유학생과 교류하는 것을 일상에서 하게 될 것이다. 그 모습이 눈에 선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활동 속에는 나와 너, 우리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내가 경험했듯이, 비교과 활동을 하는 많은 학생들이 그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내 인생을 더 빛나게 해 줄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노정은(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교수

· 삼 학 송 ·

가깝지만 너무 먼 당신

대학사회에서 학생을 대표하는 기구가 총학생회라는 것은 18학번 새내기도 알만큼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는, 단어의 순서를 살짝 바꿔서 '지금 총학생회가 학생들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볼 때 발생한다. 과연 우리학교 학생 중 몇 명이나 이 질문에 고개를 끄덕일 것인가? 고개를 가로짓지는 않더라도 가웃거리 학생이 대다수일 것이다.

현재로서 일반학생사회와 학생회가 서로 온도차를 보이는 것은 주지의 사실로 보인다. 특히 이번 대학본부의 장학금 제도 개편에 있어서 흥분일색인 일반학생의 반응과 다르게 총학생회의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못해 미명하기까지 하다.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아마 둘이 서로 다른 대학에 다닌다고 여기지 않을까 싶을 정도다.

사실 학내사안에 대해 학생과 학생회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은 비단 이번만의 일은 아니다. 작년 총학생회도 트랙 제도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기이할 정도의 침묵을 고수하지 않았는가. 그 때문에 도리어 학생회가 아니라 학생 동아리가 항의에 나설 정도였으니, 그 당시 총학생회와 일반학생의 분위기가 얼마나 판이했는지는 두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다.

물론, 총학생회는 이미 대학본부의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전혀 알 도리가 없는 일반학생과는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는 있다. 그들은 학생의 대표로서 대학본부로부터

많은 설명을 듣게 되므로, 일반 학생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문제의 본질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많이 아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을 본인들만 알고 있다는 점에서 발생한다.

거시적으로, 어떤 개편을 추진해야 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총학생회는 대표로서 학생들을 납득시킬 책임이 있다. 하지만 정보의 빈부격차 속에서 총학생회가 이런 책임을 외면할 때, 학생들의 '스피커'가 되어줄 것이라 믿었던 총학생회는 '벽'이 되어버리고, 선거 당시 이들을 믿고 던졌던 학생들의 한 표는 단번에 무책임한 의사위임장으로 전락한다. 일반학생들의 목소리가 총학생회가 지닌 '대표성'이라는 미명 아래 파묻혀버리는 것이다.

총학생회도 분명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자체적으로 추진한 소통 자리에 학생들의 참여가 매우 저조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총학생회는 간담회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자신에게 '찬성' 표를 던진 2,258명의 학우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반드시 간담회에 참여한 학생만이 총학생회에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분명 같은 '학생'이지만, 그렇다고 '학생' 같지는 않은, 이제 '가깝지만 너무 먼 당신'이 되어버린 총학생회. 이들이 끊임없는 노력으로 학생과의 거리를 심분 줄일 수 있도록 그 앞날에 건투를 빌어 본다.

이주형 편집국장

기자수첩

올로, 시발비용, 탕진잼...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져 나가는 단어다. '올로(You Only Live Once, YOLO)'는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고 소비하는 태도를 말하고, '시발비용'은 비속어인 '시발'과 '비용'을 합친 단어로 스트레스를 받아 화끈하게 지출하게 된 비용을 뜻한다. '탕진잼'은 재물 따위를 흥청망청 다 써서 없앤다는 뜻의 '탕진'과 재미를 뜻하는 '잼'을 합쳐 소소하게 탕진하는 재미를 일컫는다.

이처럼 2017년 한 해 동안 주목받았던 신조어와 유행어 중에는 유독 '소비'와 연관된 표현이 많았다. 전문가들은 이를 '저성장 시대에 국민들이 불안과 스트레스를 소비를

통해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이같은 신조어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저성장 시대', 'N포세대', '청년 불황'으로 대표되는 현대에서, '절약'과 '저축'은 청년들에게 막연한 메아리로 다가올 뿐이다.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돈을 모으는 것보다 당장의 소소한 행복을 찾는 '빚피 사치'가 청년들에게 대두되는 것은, 이러한 흐름에서 보면 이해하지 못할 일도 아니다.

그렇다고 청년들이 가격조차 보지 않고 맹목적인 소비만을 반복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절약'과 '미래'만 있던 고민의 과정에 '나'와 '현재'를 추가했을 뿐이다. 필자 역시 최근 아메리카노보다 1,500원 비싸서

텅장의 행복

결제를 망설이던 음료를 망설임 없이 마시고, 평소 눈여겨보던 뽕기 기계로 달려가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탈탈 털어내는 '빚피 사치'를 즐기고 있다. 그리고 정말 '빚피'한 변화가 매일 아침 눈꺼풀을 가볍게 한다.

일각에서는 올로 라이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올로족의 마인드를 허세라고 칭하며 현실도피라 말하고, 이들의 현재를 한심하게 생각하고, 이들의 미래를 대신 걱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필자는 '탕진잼'의 진가를 모르는 이들에게 마음속으로 외쳐본다. "짜릿해! 늘 새로워. 돈쓰는 게 최고야!"

박금정 기자 rma0418@hansung.ac.kr

낙산에 올라

"와, 완전 아저씨네? 그것도 몰라? 출석 체크 이제 어플로 하잖아."

놀리는 친구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하마터면 출석도 못 할 뻔했다. 허둥지둥 한성대학교 스마트출결 어플을 검색해 다운받아 출석에 성공했다. 근데 웬걸. 교수님이 출석을 부르기 시작하셨다. 전자출결과 실제 출석이 다른 경우가 많아 별도로 출석 체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다. 수업이 끝나고 전자출결 데이터와 실제 출석표를 대조해야 하기에 오히려 번거로워졌다고도 덧붙이셨다.

학생 입장에서 불편한 건 마찬가지다. 깜빡하고 전자출결을 잊거나 핸드폰을 두고 오면 매 시간 교수님께 출석 체크를

부탁드려야 한다. 이걸 본인 부주의니 어쩔 수 없다지만 출석 어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건 다른 문제다. "로그인이 안 돼요", "강의실에서 출석이 안 돼요" 하는 불만은 어플 도입 초기부터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문제는 반복되고 있다.

전자출결을 고집하는 것은 교육부 평가의 영향이 클 것이다. 지난해 3월 교육부가 발표한 2주기 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 안에는 학사관리 항목에 '수업관리의 엄정성'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대학신문 기사에 따르면 "1주기 평가 하위 대학을 대상으로 컨설팅할 때 전자출결 도입이 평가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조언 정도는 했다"고도 한다. 물론 전자출결 도입이

실제 수업 관리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는 순진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전자출결 후 강의실을 나가버린다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전자출결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대학본부의 입장은 이해한다. 하지만 전자출결 시스템의 정착과 안정화에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전자출결 어플리케이션의 완성도는 글로 표현하기 민망할 정도다. 이 불편함은 강의를 하는 교수님과 수업을 듣는 학생이 감내하고 있다. 수업과 출석은 핵심인 동시에 기본적인 지점이다. 대학 본부와 관련 부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해당 문제 해결에 임해주기를 바란다.

이광호(한국어문 3)

전자출결 했니? 자, 그럼 이제 출석 부른다

낙산만평

김수현(인문 2)



즐거운 MT?

상상관 2층 베이커리 카페



BREAD | SANDWICH
COOKIE | COFFEE
BEVERAGE



예약문의
070-4027-1423

상상관 12층 서양식탁 밀가옥



HAMBAK STEAK | RICE
NOODLE | BURGER
PIZZA | SALAD
SOUP | DESSERT



예약문의
070-4027-1422

제12회 사진공모전

응모기간

4월 2일 (월) ~ 5월 14일 (월)
오후 6시까지

참가대상

한성대학교 전 구성원
(학부 · 대학원 재학생, 교수 및 직원)

공모전 주제

자유 (주제의 제약이 없음)

응모방법

사진공모전 신청서와 작품을 한성대
신문사에 직접 제출
(사진은 8×10 크기로 인화)

작품 제출 장소

학생회관 제1별관 2층 한성대 신문사
(기업은행 2층)

사진공모전 신청서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신문사 방문 수령 가능

수상작 발표

한성대신문 535호
(6월 4일 발행)

상금

최우수상 (1명) - 상장 및 상금 40만 원
佳作 (1명) - 상장 및 상금 20만 원

문의

한성대신문사 02) 760-4186
이주형 편집국장 010-9286-7531

- ※ 1인당 3점의 작품에 한해 받습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수상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 사진공모전 출품작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 제출하실 때 A4용지에 이름, 학과, 학년, 학번, 휴대전화번호, 작품명을 필히 기입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 제출한 공모작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최우수상이 없을 시 가작만 시상합니다.

한성대신문사

